

한화그룹, ‘K-방산’ 위상 뽐냈다 천무 추가 수출 등 유럽진출 박차

MSPO 2023

폴란드 국방부 연구기관 MOU
PGZ와 ‘호마르-K’ 제조 협력
무인차량 등 軍 현대화 사업 참여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가 폴란드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이끌어내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10일 한화에 따르면 한화그룹 방산 3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는 9월 5일~8일(현지 시간)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유럽의 대표적인 방산전시회 ‘폴란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MSPO) 2023’ 참가해 향후 유럽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유럽에 특화된 첨단기술 기반의 무기체계를 공급하고 폴란드 2차 수출을 위한 준비도 완료했다.

특히 전시회 기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한화 전시장에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만남을 갖고 한화오션 잠수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폴란드 군비청은 전시장 야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련장로켓인 천무(폴란드명 ‘호마르-K’)를 미국의 하이마스와 나란히 전시해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월 5일 MSPO에서 폴란드 군용 자동차 및 장갑기술연구소(WITPIS)와 ‘유무인 군용 무인차량(UGV)’과 관련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WITPIS는 폴란드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오른쪽)와 세브스찬 추와크 PGZ 회장이 MOU에 서명했다

군용 차량의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개발한 무인차량 기술로 폴란드 육군 현대화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주변의 7개국과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병력을 대신해 국경 안보를 강화할 무인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다.

폴란드의 라즈문드 안제이차 총참모장과 스위보미르 치호츠키 군비정책국장 등도 한화 전시장을 찾았다. 이들은 미국 국방부의 해외비교성능시험(FCIT)을 진행 중인 다목적 무인차량 ‘아리온스멧(Arion-SMET)’, 국방과학연구소 주관 체계 개발이 진행 중인 미래형 국방로봇인 무인수색차량에 지대지 유도 미사일인 천검을 탑재한 무기체계를 둘러봤다.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 PGZ와 폴란드형 천무인 ‘호마르-K’ 제조 협력에 관한 M

OU도 체결했다. 천무 수출을 위한 2차 실행 계약에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부 기술이전 승인을 받고,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폴란드가 생산하는 122mm 로켓을 천무에 적용하기 위한 공동개발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호마르K’가 기존에 ▲사거리 290km의 장사거리탄 ▲80km의 239mm 유도탄과 함께 3종탄을 확보하면 폴란드 군의 현지화 전력에 기여할 수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MOU를 통해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국가들의 포병 수요에 따라 천무의 추가 수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폴란드 군의 핵심 관계자들은 한화의 해상 및 위성 솔루션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한화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III 배치(Batch)-II’ 모형을 둘러본 뒤에는 3조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인 ‘오르카’ 프로그램의 사업주체인 PGZ의 체자리 체어잔 이사가 ‘포괄적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는 이번 전시회에서 폴란드 첨단 위성 시스템 기업인 크리오테크의 그제고시 브로나 회장을 만나 위성 사업 협업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한화시스템의 검증된 전자광학(EO)·영상레이다(SAR) 탑재체 기술력과 크리오테크의 강점인 위성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폴란드 및 유럽 소형 위성 시장 진출 방안을 구체화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디지털 콕핏

LG전자, ‘모빌리티 랩웍스’ 공개

“미래 모빌리티 경험해보세요”

디스플레이 3종·디지털 콕핏 2종 선택
롤러블, 5G V2X 등 혁신 기술 적용

LG전자가 온라인을 통해 미래 자동차 기술을 소개했다.

LG전자는 최근 VS사업본부 공식 홈페이지에 ‘모빌리티 랩웍스 시리즈’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모빌리티 랩웍스는 ‘나에게 꼭 맞는 미래 모빌리티를 경험하다’를 주제로 LG전자가 진행하는 선행 프로젝트와 실험적인 기술 등을 의미한다.

홈페이지에는 차량용 차세대 디스플레이 3종과 디지털 콕핏 2종을 처음 선보였다.

디스플레이 3종은 다양한 폼팩터로 혁신 기술을 적용했다. 계기반과 전면 디스플레이 2개 등 3개를 하나로 통합한 ‘필러 투 필러’ 형식으로, P-O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L자구조 디스플레이를 필요에 따라

넓고 좁게 사용할 수 있는 ‘Min&Max 디스플레이’와 양쪽 디스플레이가 90도로 회전하는 ‘Pop&Fold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정도를 조절하는 ‘Flex & Slide 디스플레이’ 등이다.

또 디지털 콕핏 2종 콘셉트에는 커넥티비티와 HMI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적용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 ▲운전자 및 탑승객 모니터링 시스템(Cabin Monitoring System) ▲5G 통신 기반의 V2X(Vehicle to Everything, 차량-사물간 통신) 등 차량에서 즐기는 미래 기술을 엿볼 수 있다. 또 차량 내 전체 디스플레이를 통합 제어하는 최신 IVI(In-Vehicle Infotainment)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도 탑재했다.

LG전자 VS사업본부 이준배 영업·마케팅담당은 “모빌리티 랩웍스 시리즈를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LG전자만의 미래 전장 기술력을 지속 선보이며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삼성, 하반기 공채 돌입… 20개社 참여

18일까지 삼성 커리어스 통해 접수

삼성이 하반기 공채에 나선다.

삼성은 11일부터 18일까지 삼성 커리어스를 통해 공채 지원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공채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서울병원 ▲호텔신라 ▲제일기획 ▲에스원 ▲삼성웰스토리 ▲삼성전

자판매 등 총 20개사가 진행한다.

9월 지원서 접수와 직무적합성평가를 시작으로 10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11월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한다. GSAT는 2020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일부 직군은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와 디자인 포트폴리오 심사도 병행한다.

삼성은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를 도입했으며, 5대 그룹사 중에는 유일하게 아직까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취업기회 제공, 우수 인재 육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다.

/김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B737-8’ 신기종 도입

이스타항공의 네 번째 차세대 항공기이자 8호기(HL8544)가 지난 9일 21시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했다.

10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번 8호기 도입으로 지난 6월 도입한 4호기와 8월 도입한 6호기, 7호기에 이어 총 4대의 차세대 항공기 B737-8 기종을 확보하게 됐다.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4대의 B737-8 기재 모두 제작 후 항공사에 처음으로 인도된 신규 항공기이다. B737-8 신규 항공기의 경우 정비 주기가 길고 B737-800NG 기종과 부품과 정비 호환이

70% 이상 가능해 기재 정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8호기 도입으로 이스타항공 보유 기재의 평균 기령은 6년 이하로 낮아졌다.

B737-8은 연료 효율도 B737-800NG 기종보다 15% 이상 개선돼 연료 절감과 함께 운항거리가 1000km 이상 늘어나 최대 6570km까지 운항할 수 있어 노선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이스타항공은 B737-8 기재 4대를 인천발 국제선에 집중 투입해 신기종 운영 효율을 통한 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삼성전기, ‘커피드 파워인덕터’ 양산

장덕현 사장 “파워인덕터 시장 선도”

삼성전기가 파워인덕터 2개를 칩 하나로 구현했다.

삼성전기는 커피드 파워인덕터를 양산한다고 10일 밝혔다.

파워인덕터는 ‘제2의 MLCC’로 불리는 부품이다. 전원 회로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변환해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기 커피드 파워인덕터는 2016크기와 2218크기로 나뉜다. 각각 가로 2.0mm와 2.2mm, 세로 1.6mm와

1.8mm다. CPU 주변에 탑재한다.

특히 난제였던 저항값을 낮추면서 부품 수를 줄이고 회로 설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종전에는 늘어나는 코일 저항을 줄이기 위해 파워인덕터 2개를 병렬로 연결하면서 부피가 커졌지만, 커피드 구조로 칩 하나에 구현해낸 것.

삼성전기는 MLCC로 축적한 재료 기술을 바탕으로 특성이 우수하고 손실이 적은 자성체를 독자 개발했으며, 반도체 기관 제조에 사용되는 감광공법(빛을 이용해 회로를 새기는 제조법)을 적용해 두 코일의 간격을 정밀하게



삼성전기 커피드 파워인덕터

형성했다.

삼성전기 대표이사 장덕현 사장은 “삼성전기는 세계 최고의 소재와 공법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하여 파워인덕터 시장을 선도하는 초일류 테크(Tech)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용 기자

아비커스, 자율운항 기반 레저보트 판매

HD현대의 자율운항 전문회사인 아비커스가 자율운항 기반 레저보트 판매를 시작한다

아비커스는 이달 12일(현지 시간)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칸 요트 페스티벌 2023’에 참가해 자율운항 기술이 탑재된 레저보트를 전시하고 판매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행

사에는 전략적 파트너사인 보트 전장 업체 레이마린과 함께 참가한다.

아비커스는 유럽의 유명한 보트제조사들의 레저용 보트 3척에 뉴보트 도크를 전시하고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엔 출시된 뉴보트 도크는 아비커스의 최첨단 자율운항 기술을 기반으로 레이마린과 협력을

통해 개발했다. 총 6대의 카메라 시스템으로 구성된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통해 더 정밀한 충돌 회피와 접안 지원 기능을 제공한다.

임도형 아비커스 대표는 “아비커스가 레저보트용 자율운항시스템인 ‘뉴보트 도크’의 공식 출시를 통해 그동안 주력해왔던 대형상선을 넘어 레저보트 시장에서도 자율운항기술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